

1차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모임

일 시 : 2003년 2월 12일 오후 3시

장 소 :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실

■ 이야기해 봅시다.

1. 서로 인사해 볼까요!^▽^

2. 어떻게들 살고 있나요? - 대학상황 보고

1) 조직생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2) 학습은요?

3) 총노선(1년 사업계획)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4) 새내기사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새내기 신문, 새내기사업 도움글 첨부

5) 그 외 대학에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 대경여대협 간부 인준해주세요.

*결의서 첨부

4. 전여대협 방중 분담금 꼭 냅시다.

*725012-52-087910 농협 장혜경

5.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정기일정 정리해봐요.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두근밤 세근밤



어느날
오전 2시에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모였을때...

세네기를 만나다

'애비 세내기'

입시지옥의 터널속을 달려와 마치 막 끝난 것처럼, '대학생활'이라는 새로운 빛 앞에 선 그대의 이름! 03학번 세내기라는 그대의 이름을 두 팔 벌려 환영해요~ 무지무지 반가워요~ ^^

이제 서서히 '세내기'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죠? 대학생활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막연한 설렘에 두근거리면서 말이죠... 수줍지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으로 한창 교정을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기 전에 하나만 짚어보고 가자구요~

고등학교 4학년? 때를 벗지!

그냥 대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대학 세내기, 대학 1학년이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4학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 우리가 살아온 기억들, 특히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기억들을 잠깐만 되짚어봐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존재로 단순하게 구분되어지고 의미지어져 왔습니다. 잠깐 떠올려 볼까요? 여학생들이 다닌 학교이름은 '여자고등학교'이지만, 남학생들은 다닌 학교이름은 '남자고등학교'가 아니었던 기억들. 여학생들의 글썽은 이름답게, 침숙, 착한 사람이 되지, 알뜰한 손세, 헌명한 어머니... 남학생들의 글썽은 장조, 용기, 진실, 씩씩한 기성, 개혁, 지성, ... 대학이라는 문을 열고 한 발을 들여놓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봅시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기억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눈으로 나의 일상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대학생활 엿보기 ㄷ작진

(세내기)는
노껴하~

새로운, 신선했, 참신, 과감, 진취, 바로 세네기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생각되는 단어들이죠.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좌표와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세네기로 살아가지구요~ 그런 세네기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 준비가 되었다면 대학생활을 살짝 엿볼까요? 시선을 돌릴 때마다 내가 서있을 교정을 떠올려보고, '세네기'를 느껴보자구요~! 출발~!!



만지! 나는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이제 문장에 대해 예 혹은 아니으를 담고 옆에 표시되어 있는 점수를 더하세요>

성폭력은 좋아하는 표현이 지나쳐서 오해하는 것일 뿐이다.
데이트에 응하여 잠까지 때리거나 자기 집에 남자를 불러들인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한 일이 없다.
아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이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다.
성폭력은 여성들의 과다 노출이나 잘못된 형식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남성의 성욕은 참기가 어렵다.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있다.
남녀 관계에 관해서는 '일 남 짝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믿는다.
예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성폭력이 일어난다.

예	아니오
1	2
1	2
2	1
1	2
1	2
2	1
1	2
2	1

8~10점 허걱...가해자항의! 성폭력에 대해 매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성폭력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구요!
11~13점 방심형 성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고강민을 버려요~
14~16점 지킴이형 성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셨군요. 대학에서 성폭력을 없애기구요~



대학은 '박물관'이야.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다~ 일어나지!

성폭력,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단어... 그러나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성폭력이라? 성폭력은 말 그대로 '성(性)'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죠. 누구나 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남의 몸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 조금은 낯설까요?

실례는 마음으로 내닫는 교정! 그러나 내 몸을 펼쳐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캠퍼스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나 다양하고 수많은 성폭력이 일어나는지 '대학 =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성폭력은 교수나 강사에 의해서, 선배나 동기, 후배에 의해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예)대학이나 모교지에서, 술자리에서, 강의실, 연구실에서, 서빙버스, 심지어는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열심히 짚어내주맛~!



이제 막 실례임을 가지고 들어온 대학에서 성폭력을 경험한다면? 정말 학교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겠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폭력 박물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대학에서 성폭력을 피해가기란 그리 쉽지 않소. 그렇다면~? 눈을 부릅뜨고,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해보자구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행동하고 있던 것, 내가 말하고 있던 것들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소. 혹시나 성폭력 가해자와 같은 잘못된 성인식,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이 성폭력이라고 느낄만한 아주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요. 그리고 '성폭력'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없애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기,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대학생활을 해나가자구요.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기침없이 거부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요. 03학번 세네기들 모두가 대학을 성폭력 안전지대로 만들어가는 화려한 2009년을 만들어가요!

엄마처럼 살기 싫다구요?

만날! 엄마처럼 살기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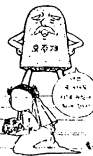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묻는다면, 밖에 이혼은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엄마라는 한 여성이, 얼마만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변해 왔기 때문이죠.

만날? 딸이, 자발! 테이머지! 엄마! 줄래?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아들 타령'이 통합니다. 여아 : 남아의 출생성비가 100 : 110.5를 넘어지고 있으며, 일년에 3만명여 달하는 여아가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원사 200여명중 90%가 '아들'을 지향할 요구받은 경험에 있다는군요.

호주제, 그것이 문제로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법이 바로 '호주제'입니다.



호주제! 남안호사상의 든든한 후원자!

호주제는 '가족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아버지·아들·손자의 순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잇기 위해서' 가족을 쓰고 아들을 낳는거죠. 대신 여자는 뱃속에서부터 거부당하며 태어나서도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일등하다는 차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행방불명된 엄마의 성(姓)!

호주제는 '남'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가족간에 합의가 안될 때는 엄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이지?

인터넷에도 대학에서도 때때로 볼 수 있는 말이죠. 호주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친집안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호적 피간다는 거' 여기서 나온 거죠.

호주제가 '전통'이리구요? 육... 전통이 없어죽더!

사실 알고보면 호주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호주제의 원조인 일본은 1947년에 폐지했답니다.

호주제, 우리가 없어요~!

온갖 불평등을 낳고 있는 호주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차별이 없어지는 것이지, 양성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별 이유없이 '딸자식은 소용없어' 여자가 무슨... '시집이나 잘 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모든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 책임지고 가고 싶지 않다면,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자구요~!



강속!
피가
되고
살이
되는!!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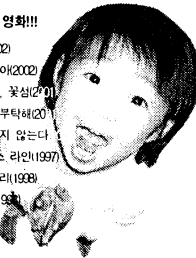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yjch.jrjbo.net
- 여성신문 www.womennews.co.kr
- 웹진 <언니네> www.unninet.c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wisters.or.kr
- 한국성신선생대회 www.k-komfortwomen.com
- 새물너 데일리 daum.net/saewon
- 호주제폐지위헌시민모임 anihho.jrjbo.net
- 전국여성노동조합 kwunon.jrjbo.net
- 전국여성노동조합연대 kwta.net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책, 책, 책!

- 행복한 페미니즘, 벨 후스 백년글사랑
- 20세기 여성사건서, 김반상심, 여성신문사
- 그 어떤 여성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가자운업길
-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트 브란트베르그, 참글가지
- 악이 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 심혜연, 이브
- 세이성학당의 한국여성연구소, 동나
-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귀옥, 당대
- 일곱가지 여성 공복코스, 여성문화연구소, 현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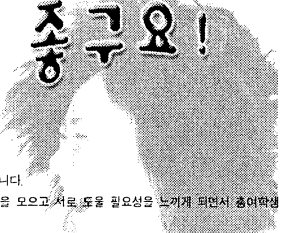
■ 강속! 영화!!!

- 헤드락(2002)
- 죽어도 좋아(2002)
- 적발(2002), 꽃집(2001)
- 고양이를 부탁해(2001)
- 소년은 울지 않는다(2001)
- 안토니오스 라인(1997)
- 낮은 목소리(1998)
- The Wall(1997)



총여학생회 & 전여대협

중중 습니다~ 중중 구요!



'총여학생회'는요~

총여학생회는 학교의 모든 여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여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집단적인 힘을 모으고 서로 도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총여학생회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여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사업으로 집행하는 자치기구입니다. 특히 대학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내 성차별적인 문제를 여학생을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총여학생회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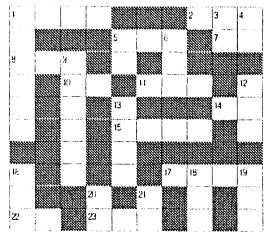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다고요? <호주제적으로>는 학내에 우호적 일어난다고 있는 성폭력에 근절해나가기 위한 활동도 하고요. 학내에서 여학생들이 소외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여학생생계금과 같이 여학생들의 복지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하고, 심각한 여학생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듭니다. 올바른 성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요, 사회의 갖가지 여성문제나 사회문제들, 이를테면 호주제, 성매매, 풍요, 노동 등도 관련된 활동도 만듭니다.

무엇보다 학내에서 학우들이 어차리서, 혹은 남자들이 어쩔거니 고민되는 것들을 함께 해가고 있거나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도 하죠. 핵학 - 뭐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 일일이 다 얘기드리기가 어렵군요.

지금 당장 총여학생회로 오세요~! 총여학생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온 마음으로 보셔드릴게요~ ^^v

'전여대협(전국어대생대표자협의회)'는 말이죠~
 그렇게 대학마다 있는 총여학생회가 모여서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여대협'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전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여대협이 하는 활동은 총여학생회가 하는 활동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총여학생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십자말풀이



<가로말식>

1. 여학생들의 모인 총OOOO는 여학생들의 대표조직
2. 가상의 주민을 남자를 중심으로 계층하는 제도, 남안호사상을 부추기는 법
5. 여성에 대한 성의를 말아오는 중앙 행정 기관
7. 땅을 고치는 사람
8. 여성들의 필수품, 지난해에는 여기에 꽃이지는 새글을 민세하러는 OOO연세운동도 활발했
10. 학생이라는 말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학생이라는 줄로 쓰
11. 국·어·남자 시어에만 시인이 써드는건 아니죠, 같은 성(性)을 가진 사람들의 시당
14. 주로 잘못된 법을 없애려고 할 때 어떤 말을 쓰죠, 호주제를 OO하라
15. 3월 15일은 세계OOOO일이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날입니다.
17. 미군 징집차에 끌려죽은 훈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OOO.
22. 미군에 의해 사람이 죽어도 이 법 때문에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 OO형징 개정하라
23. 한 성(性)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근거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세로말식>

1. 여학생들이 있는 공간, 월경할 때나 피곤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이 곳을 따로 만든 거죠?
3. 낱해, 입장, 학업이나, 시조(忠), 운동, 신념, 태도, 강행임을 나타내는 한, 민주OO, 여성OO 등
4. 땅청리 OO가 다가오면 여자들만 준비하느라 바빠 이 빠지
5. 어떤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 그러나 이 말에는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언어적 성차별이 숨어있음. OC 시인 등
6.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OOO 함께쓰기운동을 하
9. 대학 내 구성원을 시어에서, '성(性)'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12. 외국군 기지의 주변에 창성된 흔적, 이곳의 여성들 대부분은 미군병과의 성매매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
13. 중국의 각 대학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의 줄임말
16. 성폭력죄 댔을 때 성폭력OOOO를 찾는 경우가 많습
18. 이북은 미국에게 서로 친밀하지 않겠다고 '북미 OOO조약'을 체결하고 제정
19.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의해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습
20. 어머니로서 지내는 본성, 그러나 여성에게 이것을 강요해선 안되
21. 새내기 여러모름 '떠오르는 OO'로 풀리곤 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1919년 3월 1일, 거리거리마다 '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03년 3월 1일, 그 함성소리가 재현됩니다.
 남북이 한 목소리로 평화와 통일을 외칠 것입니다.
 호순이, 미선이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살아나가지고 평화와 통일을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이남에는 내정간섭으로, 이북에는 핵문제도 워디 전쟁위협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미국에 대해 '독립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남북이 약속한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목소리가 한반도에 비껴칠 날을 기다립니다.

오는 3월 1일, 이남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이북의 동포들이 이남으로 와서 함께 할 것입니다.
 19. 일제시대 일본 경찰에 의해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았습

03학번 새내기와 함께라면^^ 룰루랄라~

드림 : 9기 전여대협(건)

몽드 : 새내기 사업 잘 하기 위한 도움금

0. 들어가며

03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즐겁고 힘찬 2003년을 만들어갑시다.

그 시작, 첫걸음이 될 2월.

새내기 새로배움터도 있고 여학우 새로배움터를 하는 단위도 있을 테고 새내기들과 함께 촛불시위를 하는 단위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어느 정도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테지요!

지금 이 글은 그 계획을 조금은 더 내실있게, 아직 준비가 안 된 단위가 있다면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는 글입니다.

1. 새내기 사업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가?

1)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드높이자!

새내기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 효순 미선이의 죽음, 여성들의 힘찬 진출 등으로 03학번 새내기들은 반미자주 민족대단결 의식과 평등의 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인 예상이 아닌 새내기들 자신의 참여로 새내기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식화 내용을 구상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내기들에게 민족애, 자주 평등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합시다.

2)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하자!

새내기 사업 2월에만 하고 말 것 아닙니다. 장기적 전망에 따라 그에 맞게 진행해야 성과가 더 많이 남을 것입니다. 당장 실무적으로 바쁘고 일이 많다 하더라도, 소모임 등 새내기들이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마련해서 함께 2월 새내기 사업을 통해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3) 시작이 반이다. 그 처음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첫 걸음을 떼느냐. 그에 따라 새내기 사업의 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내기 사업의 첫발을 어떻게 뒀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각 단위별로 잘 나와야겠습니다. 가능한 꼼꼼하게 계획 짚시다!

4) 선배들은 열린 자세로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선배들의 생각으로 무조건 이끌어야한다는 생각은 자칫 잘 못 표현되어 새내기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취질 수 있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선배들도 좋은 선배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계속 해야겠습니다. 열린 자세, 평등한 마음가짐 등.

5) 새내기 사업을 하면서 선배학번들도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함께 만듭시다.

2. 2월 새내기 사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합시다.

새내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새내기들과 함께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①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 : 전여대협에서 제출한 예를 잘 활용해서 해도 좋겠네요!

② 직접 많이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2) 새내기들과의 만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① ★★새로배움터를 잘 준비합니다.

ㄱ) 전체 새로배움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새내기가 새터를 함께 하는 경우, 단과대별로 과별로 새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터에 어떤 내용과 방도로 함께 할 것인가와 얼마만큼의 단위를 책임질 것인가의 세 가지 문제가 나섭니다.

-내용

성폭력문제, 대학 내 성문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쉽게 접하고 꼭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주제로 잡읍시다.

새터 때 반성폭력 수칙이나 내규 등을 정해서 지키도록 합시다.

-방도

새터 일정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 강연이나 영상물, 촛극 등을 준비해서 일정에 포함시키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합시다.

새터 자료집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새터 장소에 선전물 붙이기 : 여학생회 내용과 소모임 모집 선전물을 간단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붙여놓아도 좋겠네요.

-얼마만큼의 단위 일정을 함께 할 것인지

과여학생회, 단과대학 여학생회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전 단위를 다 돌아보고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 단위를 다 책임지고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되 집중 단위를 나름대로 결정하고 제안하여 진행합시다.

ㄴ) 여학우 새내기 새로배움터

과, 단과대별로 또는 총여학생회 차원으로 여학우 새터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도입니다. 여학우 새터를 잘 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써볼게요.

-일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새터 일정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일일이 잘 해야겠지요!

-선배학번들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선배학번들도 클 수 있는 계기입니다. 공부도 하고 준비를 잘 합시다.

-선배들이 꼼꼼하게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선배들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겠지요. 새내기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선배들이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용을 잘 짜야 합니다. 내용을 쉽고 재미나게 여학생회 내용이 잘 풀려나도록 합시다.

-새터 한 후 조직화된 새내기들을 잘 챙겨야합니다. 그리고 새내기들이 여학생회와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새내기들의 상황에 맞게 후속작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② ★★소모임 모집 등 새내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듭시다.

각 단위별로 소모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소모임을 구성할 건지 어떤 형태의 소모임을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꼭 세웁시다. 작년 평가에 기반해서 올해 더 잘 해나가도록 준비해야겠구요! 소모임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라도 새내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합시다.

③ ★★각 과 학생회실 방문, 카페 활동 등 아무튼 무조건 새내기 속에 파묻히자!

여학생회에 대해 알리고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기 위해서 새내기들 속에 파묻히도록 합시다. 단대/과 새터를 함께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과학생회실이나 카페 등을 통해 새내기들과의 만남을 많이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촛불시위를 통해서 그 위력을 과약했다시피 인터넷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ㄱ) 03학번 새내기 카페에 잘 들어가기

이미 만들어져서 활성화된 카페가 있을 것입니다. 카페 가입을 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갑시다.

단지 새내기들의 의식을 과약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학생회에 대한 의식화와 함께 여학생회 사업을 새내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알려냅시다.

ㄴ) 총여학생회 새내기 카페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여성관련 소식이나 대학 내 성문화 등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새내기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새터나 여학우 새터 등을 통해서 카페를 많이 알리면 더 좋겠지요!

3. 총여학생회나 단과대 여학생회가 없는 경우

1) 새내기 의식조사 사업을 통해

새내기 의식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성 관련 사안이나 여학우 복지 등의 질문을 포함시켜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해나가도록 합시다.

2)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통해

- ① 자료집에 여학생회 내용 넣기
- ② 새터에서 직접적인 강연이나 영상물 보기
- ③ 토론 거리에 포함시키기
- ④ 반성폭력 수칙이나 내규 정하기
- ⑤ 평등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에 함께 합시다.

3) 장기적으로 여성국 간부를 둔다거나 하여 여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구조 마련

4. 새내기 사업 도움 자료

- 1) 2002년 새내기 사업을 위해 제출된 문서 -> 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 2000년 서울대 인문대 새터 반성폭력 내규
- 3) 반성폭력 수칙 -> 2002년 경희대 총여학생회
- 4) 의식조사 사업의 예 -> 전여대협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대경여대협 건설·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경여대협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대구경북지역 여학생운동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99년 이후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을 이끌어 갈 체계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여학우들의 여학생회 필요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왔고 각 대학에 총여학생회가 건설되긴 하였으나 하나로 묶여져 사업과 투쟁을 벌여가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99년 이후 건설된 몇몇 단위 여학생회가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묶여 살아오긴 하였으나 지역 여학생운동의 상황을 잘 진단하여 지역의 여학생운동을 일구어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운동을 책임지고 일구어갈 주체가 없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3여년 간 지역간부가 세워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각 대학에서 여학생회가 여학생운동의 중심을 틀어쥐고 대중조직답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세워졌던 대부분의 대학운동 주체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미약했었습니다. 이런 주체들을 단련하고 각 대학 여학생회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운동주체가 마련되어 대학 핵심들과 밀착하여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대경여대협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2003년 대구경북지역에는 각 대학 학우들의 요구들로 세워진 여학생회 체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여학우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올 해 건설된 여학생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경여대협 체계를 건설하고 그 속에서 지역 여학생운동의 일관된 방향과 흐름을 잡아가야 합니다.

지역 여성운동이 침체되어있는 지금 시기에는 여학생운동부문의 몫이 큼니다. 대경여대협 체계를 건설하여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 여학생회가 단결하여 사업과 투쟁을 논의하고 풀어간다면 지역여성운동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대경여대협 간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대경여대협 간부로 2003년을 살아갈 준비가 갖추어졌는지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학생운동을 한지 올해로 4년입니다. 대학 3학년이 되어서 총여학생회 부회장으로 여학생운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운동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부족했고 여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여학우 대중은 총여학생회 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와 역할을 주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때였기에 학우대중이 준 나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 다음해 총여학생회 핵심간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체의 나약함, 준비부족으로 대학 여학생운동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게 여학생운동 조직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대학 총여학생회에 대한 애정,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과 욕심으로 2002년 총여학생회장을 결심하였습니다. 2년간 총여학생회 일꾼으로 살아가며 누적되어왔던 고민들을 풀어낼 각오와 결심으로 당선이후에는 가속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기운차게 뛰어다닐 즈음해서 전여대협 의장 제안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주체의 나약함으로 힘들어하던 과정이 있었으나 전국 여학생운동 현황에서의 영대 총여의 역할과 영대 총여일꾼들의 믿음으로 전여대협 의장을 결심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전여대협 의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에서 많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운동과 여성운동에 대한 확신과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여간 대경여대협이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경지역의 여학생운동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지역 여학생운동의 상황에서 대경여대협 간부로 살아가기에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경여대협 건설의 요구앞에서 주체의 부족함을 내세워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2003년을 여학우 대중의 조직, 대경여대협 간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경여대협 간부 결의자
단주

2차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모임

일 시 : 2002년 2월 23일 오후 3시
장 소 :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의실

■이야기해 봅시다.

1.어떻게들 살고 있나요? - 대학상황 보고

- 1) 조직생활, 학습 진행에 대해
- 2) 총노선 수립 진행에 대해
- 3) 새내기 사업 진행, 평가에 대해
- 4) 대학 특이사항

2. 개강맞이 사업 진짜로 잘해 봅시다!

3. '3.8 세계 여성의 날' 어떻게 준비할까요?

- *3.8 여성노동자 걷기대회 기획안 첨부
- *3.8 세계 여성의 날 교양자료 첨부
- *3.8 세계 여성의 날 전여대협 준비지침 첨부

4. 다음 모임일정 정합시다.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소모임=>총여는 대중매체 소모임이 아닌 활동 소모임으로 고민

4월 중으로 계획수립

단대 여학생회 소모임 준비중

경북대→①4월 2일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한 일꾼학교 진행 (여성주의운동가학교, 여성주의운동가학교?)

②4월 3일 전학대회에서 여성국 사업계획서 인준, 반성폭력 결의문 채택 (2. 10. 10. 10.)

③다음주 반전문화제, 4.9통일열사 추모제 진행

④과여학 건설되고 있음

⑤장기적인 여학생운동 발전을 위한 고민 시작, 다음주부터 핵심인자 발굴

여성국 사업을 조직사업위주로 고민할 것임

⑥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재소집 고민

과에서 자치규약 제정 움직임 일어남(인문대 철학과 등)

<논의안건>

1. 여성캠페인

결정사항→장소는 유동적으로 하자

일시는 회의에서 논의되는 대로하자. (주말은 피해서 하면 좋을듯하다)

내용은 시기에 적절하게 정하자

4월 내용은 반전, 비정규직으로 하자

2. 4월 초·중순 집행대책

결정사항→반성폭력, 위안부문제 참가

<기타안건>

1. 다음회의 일정

결정사항→4월 19일 12시 경북대에서 진행하기로 함

3차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모임

일 시 : 3월 12일 (수) 오후 7시

장 소 : 민족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의실

1. 지역여대협 일꾼 모임 보고

2. 3·8투쟁 총화 , 대학총화.

①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각 단위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대중사업과 의조직화 측면으로 나누어서 총화해봅시다.)

- 계획한 수립을 꼭 열거해봅시다.

- 실지 집행한 것도 꼭 나열해봅시다.(화장실 선진물 붙인 것까지 꼼꼼이 총화해봅시다.)

② 새내기 맞이 사업, 개강사업과 맞물려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③ 의식화 내용과 방도는 어떠했는지

④ 조직화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준비 주체로서 얼마나 조직되었습니까?(총여학생회 일꾼 외에 준비역량을 얼마만큼 꾸렸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새내기 조직화는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학우들의 참여 정도가 어땠습니까?

⑤ 단체들, 여성민중들과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평가될 지점은 어떤 점입니까?

⑥ 38 투쟁 평가와 후속활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3. 9기 전여대협 1년나기 토론

4. 전여대협 3,4월 사업계획 토론

5. 9기 전여대협 지도력 구축에 관하여

6. 다음 모임일정에 관하여

7. 기타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준)

4차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모임

일 시 : 2003년 3월 23일(일) 오후 3시

장 소 : 민족 경북대학교

◀보고안건▶

1. 3-8 평가회의
2. 농학연대 핵심일꾼 수련회
3. 대학상황
 - 1) 대학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투쟁
 - 2) 대학 조직생활 및 학습
 - 3) 소모임 사업, 과여학생회(부) 사업

◀논의안건▶

1. 2003년 여성 캠페인
2. 대구 여성의 전화 성폭력 테이블
3. 4월 대경여대협 흐름

◀기타안건▶

다음안건.

자주의 옥토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준)

4차 대경여대협 핵심일꾼 모임 회의록

참석 : 경북대 여성국장, 영남대 총여부회장, 동국대 총여부회장, **경산대**

보고안건1 => 3.8평가회의

경북대 :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가 하나가되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

보고안건2 => 농학연대 핵심일꾼 수련회

보고안건3 => 대학상황

경산대	1	교육개방과 관련하여 학부학생회를 만나 투쟁 계획
	2	8:30/6:30 → 계획, 학습진행되지않음
	3	탁아소모임→개강이후 두차례활동, 새내기 모집은 되지 않은 상황, 성원 모두가 선전을 진행하며 활동 과여학→만남을 가져보지 않음, 구체적 계획 없음, 틈틈히 자리매김하지 못함, 과에서 화장실신문, 생리대 나눠주기등의 활동
동국대	1	3월 27일 총여해오름식 4월 1일 전여대회 4월 둘째주 취업박람회(모의면접 형식) 조통위에서 반미반전 서명운동 진행
	2	조례는 진행되지 않음, 6시 회의 학습진행되지 않음
	3	소모임→기본들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 부족 과여부→간호학과 중심으로 고민
경북대	1	여성노조와 함께 기숙사 아주머니 투쟁(비정규직), 학교사업으로 인해 전격 결합하지 못함, 목요일 마다 투쟁 진행 4월 2일 여성주의 의식지형창출을 위한 일꾼학교 학칙→총집내에서 공유, 철학과 반성폭력 강연회 계획, 본관과 본격적인 얘기는 되지 않은 상황 4월 둘째주 대동한마당에서 여성마당사업계획
	2	총집과 조직생활 개인적으로 사상학습 진행
	3	과여학→컴공과 여학생회와 만날계획, 농대 단여운위 지속적으로 진행, 농대 대동학교 계획 (단짱님을 중심,과여회장 새내기 1인 기획단구성)
영남대	1	3월 27일 학생총회때 회칙 공포 학칙→학생성폭력위원과 개정 논의중, 학교 상담원에게 말긴 상황 4월 2,3일 여학우 새날열기(총여출범식) 총노선 초안으로 총여 논의중, 간담회 계획 모꼬지 자치규약 단위 제안 성폭력 강좌 개설(학점인정) 준비중
	2	8:30/6:30→조례 진행되지 않음, 학생총회 선전전으로 요즘 더욱 안됨, 종례중심 회의 정책국장 인선 야대 보궐선거 준비
	3	소모임→구체적으로 계획, 다음주 선전으로 모집 과여부→간담회 계획

논의안건1 => 대구경북지역 여성캠페인과 관련하여

경북대 : 대학에서 여성사안을 중심으로 투쟁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나섬

여학일꾼이 투쟁속에 단련되는데 좋은 기회

동국대 : 지역이 달라서 매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듯 함

학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고민하겠다.

영남대 :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앞섬

현재 총여학생회 역량상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에 대한 것을 총여집행부에서 논의한적

있음

캠페인이 진행된다면 단순한 참여보단 함께 만들어갔으면 함

경산대 : 적극적으로 여성사안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자

참가인원 조직화에 대한 우려

경북대 : 캠페인 방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우조직화 우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모두가 캠페인을 합의

논의안건2 =>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테이블과 관련하여

경북대 : 반성폭력운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정짓는하에 진행하였으면 함

동국대 : 학내 상담원이 있어 도움을 얻고 있음

영남대 :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대경여대협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로 함

논의안건3 => 대경여대협 4월사업계획 논의

기타안건 => 다음 회의 일정 결정, 4월 6일 오후 1시 동국대에서

대경여대협 5차 핵심일꾼 모임

일시 : 2003년 4월 6일(일) 오후 3시

장소 : 동국대학교

◀보고인건▶

1. 전여대협 2차 조직국 모임
2. 여성캠페인 회의
3. 대학 상황
 - 1) 대학 조직생활 및 학습
 - 2)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투쟁
 - 3) 소모임 사업, 과여학생회(부) 사업

◀논의인건▶

1. 2003년 여성캠페인
2. 대경여대협 4월 초·중순 집행대책

◀기타인건▶

1. 다음일정

19:12시

자주의 옥토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대경여대협 5차 핵심일꾼 모임 회의록

일시 : 2003년 4월 6일(일) 오후 3시

장소 : 동국대학교

참가단위 : 경북대, 영남대, 동국대

<보고안건>

1. 전여대협 2차 조직국 모임

인터뷰 사업관련 설명 진행

경북대→청소용역 아주머니 투쟁, 4월 2일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한 일꾼학교

영남대→여학우 새날열기, 문과대 학생총회(여학생회칙 인준과정)

동국대→총여해오름식, 전여대회

2. 여성캠페인 회의

여성캠페인 내용이 결정되지 못함, 단위에서 논의한 이후 결정하기로 함을 보고

3. 대학상황

동국대→①'반전평화 동국대 실천단'에 총여 참여, 4월 3일 실천단 발대식 진행

②해오름식과 전여대회가 미뤄짐, 아직 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

③총여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음(간부 사이)

④4월 7일 1사분기 감사 준비하고 있음

⑤전쟁의 본질에 대한 선전거리 준비중(9일)

⑥10일 반전평화 문화제

⑦학내 성폭력문제 발생으로 성폭력 처리와 예방을 위한 대책위 구성

학칙 개정에 대한 논의 진행중

성폭력 가해자 2년 휴학, 공개 설명사과, 접근금지, 성교육 상담으로 처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지 않음

영남대→①8시 30분 5시 조·종례 진행

전체 여학생회 일주일에 한번 전체 조례를 진행할 것을 제안

오후엔 대오 대표자회의를 진행할 것을 고민 중

②학습진행이 되지 않아서 요일별로 내용을 정해서 조·종례때 진행할 고민

③반미 반전, 성차별없는 학교란 내용으로 새날열기를 2~3일 진행

④이번주에 총여 4월 사업계획 제출 예정

(과여부 건설, 반전, 위안부 문제내용이 중심)

총노선 거의 완결, 간담회 준비

⑤문과대 여학생회 학생총회 통해 회칙 인준

야대 여학생회 보궐선거 준비중

과여부=>자원대 여학생위원회 건설, 자원대 과여부모임 진행

공대 여학생회 과여부 모임 진행